

대만, PET장섬유 계속 증설

월생산능력 11만톤 수준 ... 중국·한국 수출계획

대만의 합섬업체가 폴리에스터장섬유생산설비를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태남방직이 이달 4800톤을 증설한 외에 현재 추진중이거나 이달 계획하고 있는 증설분을 합하면 월산 1만3000톤을 초과하는 증설1만이 돼 아시아지역의 폴리에스터수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만내 폴리에스터장섬유 생산능력은 태남방직의 증설분을 포함 11월 현재 월간 10만톤에 달하고 있다. 태남방직은 증설에 따라 월산 1만톤의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됐다. 이밖에 華隆이 내년 2월까지 약 5800톤의 증설을 완료, 월산 2만5800톤이 된다. 원동방직도 계획중인 2천톤의 증설이 실현되는 경우 1만7000톤에 달하게 된다. 신광합섬도 1천톤 증설, 생산능력이 1만1천톤으로 증강될 예정이어서 이들 증설분을 추가하면 총생산능력은 월산 11만톤에 접근한다.

증설의 중심품종은 POY(반연신계)로 대만에서의 POY가공사의 수급은 현재 공급이 달리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내년 가연기의 증설이 100~130대로 예정돼 있는데 만약 100대가 증설되는 경우 월간 1만톤의 POY가 소화될 수 있게 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가공계인데 중국을 중심으로 한국·중동에 수출할 방침이어서 초점은 중국의 수요동향이 되고 있다. 원동방직은 이에 대해 「중국의 경우 단섬유는 많지만 폴리에스터장섬유는 아직 적은 편이다. 특히 계가공이후의 단계가 뒤져 있어 자급화는 아직 멀었다. 이밖에 한국·대만의 직물메이커들이 중국에 진출해 있어 가공사의 수요는 충분하다」고 보고있다.

대만 PET장섬유 생산능력
(단위 : MT/월)

기업	현재	증설계획
南 亞	20,250	
遠 東	15,000	2,000
華 隆	20,040	5,460
新 光	9,810	1,000
中 興	6,120	
東 雲	10,800	
宏 州	5,220	
台 南	10,020	
裕 和	510	
聚 隆	1,980	
합 계	99,750	8,760

주) 台南의 현생산능력은 4800톤의 증설분 포함